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3호 [루계 제23430호] 주제100 (2011)년 4월 23일 (토요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領導를 한마음

한뜻으로 밟들어나가자!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라진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라진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태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인민보안부장 허명수동지, 국방위원회 국장 현철해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소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진두지휘하시며 현일 불철 주야의 초강도 강행 군길을 걸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조선소의 로동계급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설레이고 있었다.

조선소의 로동계급은 나라의 수산업과 해상운수,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여러 가지 선박들을 많이 생산할 때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배무이전투를 힘 있게 벌려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소전경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배무이정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미래에 대한 락관과 신심에 넘쳐 충천한 기세로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현신분투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领导를 충성으로 받아온 조선소의 로동계급은 지난 기간 온갖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많은 배들을 무어범으로써 나라의 선박공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해방전에는 쪽배 하나 제대로 무을 수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한領導에 의하여 강력한 선박공업이 창설되고 오늘은 여러 가지 현대적인 배들을 척척 무어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대한 생활력의 일대 시위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라진조선소는 나라의 선박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고기배들과 함께 대형 짐배들을 많이 무어내는 것은 수산업과 해상운수,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조선소에서는 더 많은 배들을 무어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선박공업은 나라의 공업발전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정표의 하나로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소에서는 배무이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 공정을 과학화, 현대화하여 배무이기간을 줄이고 그 질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컴퓨터에 의한 배설계, 선체가공 및 조립에서 수자조종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더 많은 배를 무어내기 위해서는 현 판된 부문들에서 그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원료를 제때에 생산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라진조선소의 로동계급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감으로써 강성대국 건설대전에서 영웅적 기개와 필승의 기상을 떨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라진조선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진눈깨비가 내리는 콧은 날씨에 나라의 최북단에 위치한 머나먼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며 선박공업발전의 진로를 밝혀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강성대국 건설업무 실현에 한몸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64대련합부대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64대련합부대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예술선전대원들의 가슴은 끊없는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끊어번지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국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인 김정일동지, 조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태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인민보안부장 허명수동지, 국방위원회 국장 현철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대장 최부일동지가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선전대원들은 합창 『초병은 수령님께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남성성창 『조선인민군가』, 시랑송 『위대한 현신의 기적소리』, 여성독창과 방창 『회령의 봄』, 국선동 『병사가 받은 칭찬』, 중창이 야기 『우리가 앞장에서 서자』, 실화선동 『군민대단결의 노래』, 더 높이 울려가자, 독연곡 『총포성없는 싸움』, 여성독창 『반일전가』, 시와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펼치였다.

시 종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 기상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장장의 손길 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백두산혁명강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인민군군인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출연자들은 심장의 피를 끓게 하는 격동적인 공연을 통하여 군인들의 심장마다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심어주며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군인예술인들의 위력을 힘 있게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승리의 함성인 양 힘 있게 울려 퍼지는 충성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들으면서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무적의 대으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조선혁명의 종국적 승리와 강성대국건설의 업실현에 한 몸 다 바쳐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혁명적 군인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도도히 맥박치고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

게 울려주는 전투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인들의 무한대한 정신과 고상한 도덕풍모, 보람찬 군무생활을 그대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이인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출연자들이 공연을 통하여 투철한 수령판과 혁명판을 지니고 랑만과 희열에 넘쳐 역세계 전진하는 우리 혁명군대의 참모습을 잘 펼쳐보였다고 하시면서 선군시대의 새 문화창조자들인 그들의 혁명적인 창작기풍을 치하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264대련합부대예술선전대의 공연은 최근에 진행한 예술선전대공연중에서 제일 훌륭한 공연이라고 하시면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한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육탄정신을 절대

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불사신의 용사들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이 무적의 대군이 조국방선을 굳건히 사수하고 있기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커다란 감화력과 높은 호소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선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예술선전대원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공연을 보아주시고 위훈의 한 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경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예술선전활동을 전공적으로 벌려 군인들의 혁명교양에 적극 이바지해 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아와 일본의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이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그대로 반영한 인식교양적이인가 큰 훌륭한 작품들을 가지고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께서 공연을 함께 관람하시였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같은 소식을 보도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당, 전군, 전민이 어버이수령님의 강성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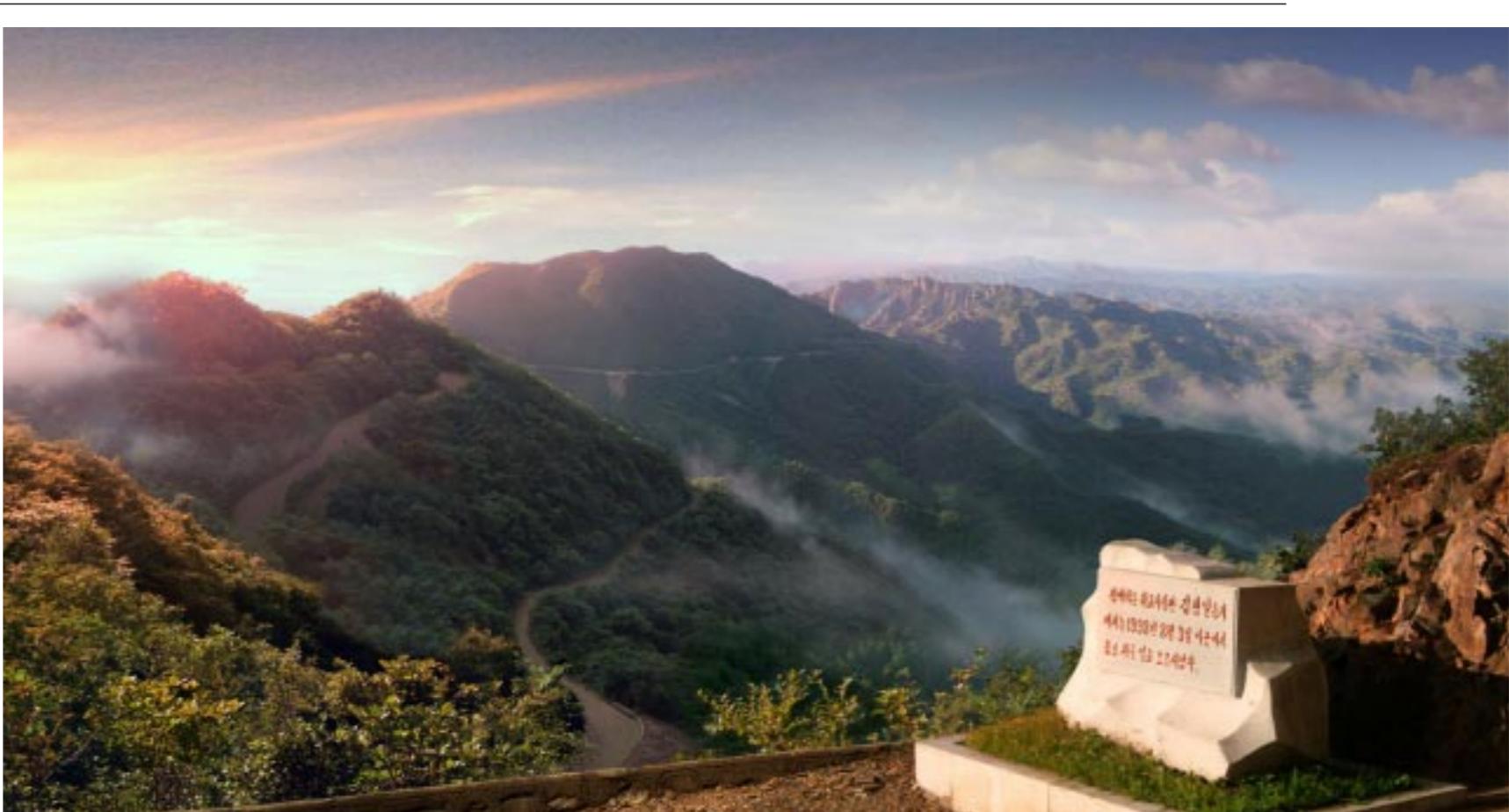
건설년원을 끝까지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펼쳐자고 기록하고 결전에 벌려 든든하고 결긴다. 이아를 생산해낸으로써 일록강 1000회를 김일성민족의 최상회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 경사로 맞이하려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신데 대하여 강조하신데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또한 톡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제프락트로드종합공장과 강제고려약품장을 협진지로 하시면서 과학기술의 혁명활동소식을 라오스, 팔란드, 브라질에서 보도하였다.

12일 라오스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에 출단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시면서 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다.

라오스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제련소를 협진지로 하시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에 서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제련소를 협진지로 하시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에 서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조국의 운명 지키려 위대한 장군님 끊임없이 이어가신 전선 강행군길의 만단사연을 전하는 오성산 본사기자 리명일 책음

인민군대 중대강화의 길에 어린 선군령장의 거룩한 자욱

총대로 빛나는 내 조국땅에 선군혁명의 가치가 더 높아 나부끼고 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들어쥐고 인민군대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강화해나 갈데 대한 울여공동사설의 구절이 천만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다.

중대 강화를 기본으로 털어쥐고 부대지휘관리를 개선하며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여 인민군대를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억세게 키우실 철석의 의지를 암시하고 끊임없는 전선길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장군님.

사랑과 믿음으로 중대 강화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면서 전군을 수령결사용위의 전일체로 키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뇌세기며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위대한 형 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성스러운 혁명업무를 총대로 수호하고 계승완성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변화없는 신념이며 의지입니다.』

인민군대의 세포이며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를 강화하는가 전군과 평승불폐의 혁명강군으로 억세게 준비될수 있다.

중대 강화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우리 장군님께서 중대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심혈과 헌신에 대하여 얼마나 감회깊이 되새겨 보시는지 우리는 아직 다른 모른다.

잊지 못할 역사의 한순간을 되새겨보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찍으신 때로부터 서른 여덟해가 되면 주제 87 (1998) 년 8월 25일이었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중대를 강화하는것은 인민군대전체를 강화하는 출발점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뜻깊은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 수령님에 대

한 추억의 세계를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령도하시는 전기간 중대를 강화하는데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고,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회회장, 몽골 박기하고 혁명경찰을 풍성한 살림을 보시고 너도나마 기쁘시여 거

도록 치하해주시는 그이의 친어버이사람에

서도 그 대회에 참석하시여 중대를 강화

할때 대한 혁신적인 연설을 하시였다고,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중대를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꾸려가는것

이 너도나마 기쁘고 대경하시여 은정어린

사랑과 믿음으로 중대 강화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면서 전군을 수령결사용위의 전일체로 키우신 경애하는 장군님.

만장을 올리는 그이의 가르침심을 새겨입으며 일군들은 중대 강화를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편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틀어쥐고자 했던 철학입니다.

또 어느해인가는 몽골들은 삼복의 무

더위를 헤치면서 찾으셨던 어느 한 중

대의 모습이 너도나마 잊혀지지 않으시여

인민군대의 한 책임임군에게 오랜 시간

에 걸쳐 상세히 이야기해주시였다.

병영과 아담한 야외 휴식장은 울창한

수림속에 묻혀있고 자체로 건설한 발

진소를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전기를 쓰고있던 그이의 정성 그 무엇으로써도 해아릴수

도 결수도 없는 무한한 한것이다.

지구상에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

듯 우리 병사들처럼 군사부무의 나날을

위대한 선군령장의 축복을 받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위훈을 세워가는 긍

지높은 보람찬 시절로 사상과 정신,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

들을 육성하는 선군혁명대학과정으로

여기는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이렇듯 위대한 어버이사랑이 전군의

중대마다에서 헌팅처럼 따스롭게 스며들고

여기에서 수령결사용위의 총대는 더욱 역

세여지고자 하는것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숨하에서 무직의

대오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는 앞으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펼치며 나

라, 내 조국의 맑고 부른 하늘을 굳건히

여기에서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리고는 종잡을수 없는 이 신기한

사실앞에 그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은 후부터

『김일성장군님은 가랑일으로 군사

를 낚아서나온다.』는 전설이 파다하게

여기에서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리고는 종잡을수 없는 이 신기한

사실앞에 그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은 후부터

『김일성장군님은 가랑일으로 군사

를 낚아서나온다.』는 전설이 파다하게

여기에서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리고는 종잡을수 없는 이 신기한

사실앞에 그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은 후부터

『김일성장군님은 가랑일으로 군사

를 낚아서나온다.』는 전설이 파다하게

여기에서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리고는 종잡을수 없는 이 신기한

사실앞에 그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은 후부터

『김일성장군님은 가랑일으로 군사

를 낚아서나온다.』는 전설이 파다하게

여기에서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리고는 종잡을수 없는 이 신기한

사실앞에 그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은 후부터

『김일성장군님은 가랑일으로 군사

를 낚아서나온다.』는 전설이 파다하게

여기에서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리고는 종잡을수 없는 이 신기한

사실앞에 그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은 후부터

『김일성장군님은 가랑일으로 군사

를 낚아서나온다.』는 전설이 파다하게

여기에서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리고는 종잡을수 없는 이 신기한

사실앞에 그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은 후부터

『김일성장군님은 가랑일으로 군사

를 낚아서나온다.』는 전설이 파다하게

여기에서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리고는 종잡을수 없는 이 신기한

사실앞에 그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은 후부터

『김일성장군님은 가랑일으로 군사

를 낚아서나온다.』는 전설이 파다하게

여기에서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리고는 종잡을수 없는 이 신기한

사실앞에 그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은 후부터

『김일성장군님은 가랑일으로 군사

를 낚아서나온다.』는 전설이 파다하게

여기에서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리고는 종잡을수 없는 이 신기한

사실앞에 그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은 후부터

『김일성장군님은 가랑일으로 군사

를 낚아서나온다.』는 전설이 파다하게

여기에서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리고는 종잡을수 없는 이 신기한

사실앞에 그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은 후부터

『김일성장군님은 가랑일으로 군사

를 낚아서나온다.』는 전설이 파다하게

여기에서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리고는 종잡을수 없는 이 신기한

사실앞에 그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은 후부터

『김일성장군님은 가랑일으로 군사

를 낚아서나온다.』는 전설이 파다하게

여기에서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리고는 종잡을수 없는 이 신기한

사실앞에 그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고 말았다.

조국과 인민의 기억 속에 영생하는 참된 애국농민

공화국 영웅 김제원 동지의 삶을 더듬어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구상을 찰로 밟아 헤매었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첫 봉화를 들었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키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파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했던 재령군의 애국농민 김제원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였다.

돌이켜 보면 김제원농민이 애국미현남운동의 첫 봉화를 들었었던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그가 희생된지도 60년이 지났다.

하지만 애국미현남운동의 선구자, 농민영웅이라는 고귀한 부름과 함께 쌀로 당과 수령을 받은 김제원농민의 공로는 후세에 걸쳐 전해져야 한다.

우리 수령님께서 새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라고 높이 평가하시며 놀라울지 못하였고, 우리 장군님의 기억속에 영생하고 있는 김제원농민이다.

그는 파연 어떤 인간이었는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칭찬하였다.

『삶의 길지와 보람은 결코 자기만 잘 먹고 잘 일하고 향락을 누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봄바탕 쓰우는 창조와 투쟁 속에 있습니다.』

1946년 말 어느 날 쌀가마니들을 가득 실은 소달구지를 물고 채령땅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한 농민이 있었다. 분여 받은 땅에서 농사지은 쌀 30가마니를 나리에 바치기 위해 평양으로 가는 재령군 대총회(당시)의 김제원농민이었다.

달구지가 차도 가득 실었지만 그것이 아직 성차지 않은 듯 그는 이따금 소리를 떼워서 우고 쌀가마니들을 다시 더듬어보 군하였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이 아니시였다면 어떻게 상가집 개만도 못하면 우리 농민들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겠는가!)

두눈을 슬侮하여 그는 피눈물을나는 혜전의 나날들을 돌이켜보았다.

나라를 잊었던 그 세월 김제원은 어려서 부모를 놀리고 잔해를 먹어지기 전부터 지주집며 숨살이를 하였다. 후날에는 흉악한 일제의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암석에 가혹한 소작살이에 시달리면서 죽지 못해 살아갔다. 조상의 유무덤이 있고 래를 묻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 땅에서 난 흙을 한알도 남김없이 섭 나라 족발이들에 의해 빼앗기었다. 김제원은 틈없이 땅을 다른 농사꾼이었으나 해마다 그가 땅에 뿐인 것은 정녕 씨앗이 아니었다. 나리월은 망국노의 설을파 유판이었다. 그는 농사꾼이기 전에 간악한 세놈들에게 지지지 짓밟는 짓을 보다 못한 노예였다.

더는 참을수 없어 들고 일어난 나무리 농민들의 소작쟁의가 일제 야수들에 의하여 무참히 진압당하였을 때였다. 김제원농민은 마침 풀 모르는 술을 마시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울불을 뜨렸다.

『아, 불쌍한 우리 농사꾼들은 이 참혹한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간단 말인가!』

나라를 잊고 땅이 없어 설을파 유판에 흘러가던 그의 불운한 인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아오신 조국의 혜방과 함께 영광 끝이 났다.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 봄 역사적인 토지개혁법률이 발포되었다.

김제원농민도 땅을 분여받았다. 그렇게 도 소원하고 소원 하던 땅이 그에게

3,300평이나 차례졌다.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꿈이 아니었다. 땅을 다루며 나이 60이 되도록 살아온 김제원농민은 너무도 뜻밖이여서 황송해하며 몸돌바를 물려했다.

평생 소원이 풀리던 날 김제원농민은 어버이수령님을 은덕이 너무도 크고 고마워 멀리 평양의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눈물을 흘리었다.

그는 분여 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십시오면 있다면 누구나 나리에 바칠 수 있지요. 나는 그저 김일성장군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었고 나리에게 우러 인민이 살수 없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며느리들이 높이도 높이 쌓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김제원농민의 눈에는 눈물이 끝그르렀다.

잃었던 나리를 찾아주시고 수수천년 내려오던 낡은 토지소유관계를 끝장내여 우리 농민들의 운명과 처지에서 구국적인 전환을 일으킨 이수령님, 수령님의 품에서 난생처음으로 제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삶의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체험한 그였다.

하지만 김제원농민은 그 행복과 기쁨을 만족되여있지 않았다. 새 조국건설로 들끓는 농방곡곡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에 대해 깊이 생각한 그는 자기가 농사를 지어 거두어들인 쌀을 나리에 바칠 것을 결심하였다. 나리가 있고 있어서 땅의 주인인 농민도 있고 농사는 보람도 궁지도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조국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애국의 첫 자욱을 맨 김제원농민의 소행을 두고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제원농민의 애국적 소행에 대한 보람과 봉상을 주었고, 나리에게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국미를 실은 달구지를 물고 평양으로 향하면 그때 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그 걸음이 어떤 거제한 애국의 유통을 이루고자 자기가 어떤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고지식하고 순박한 그의 미리속에는 해방된 조선의 농민들이 마땅히 나리의 식량사정을 뚫고는 적으나마 이비지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이 가득차있지 뿐이었다.

그러나 알같이 고르고 고른 애

조국은 이런 애국자들을 자랑한다

최근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민족고전《비변사등록》을 우리 말로 번역하는 사업을 훌륭히 끌어내어 경에 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민족문화유산을 발굴 정리하고 옮겨세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과학자가 되기 전에 진정한 애국자로

과학연구사업일반이 다 그러한 것처럼 민족고전번역도 오랜 기간의 주한 탐구와 노력을 전제로 하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특히 민족고전번역은 문법체계가 제이지 못한 고한문으로 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에서 《비변사등록》번역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이민전에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리조설록》번역과 《팔만대장경》의 해제본, 본편에 참가했던 관록에는 학자들이 집단의 기동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어버이수령님께서 아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주 회고하시는 흥기문선생의 제자들이다.

로학자들이 《비변사등록》번역사업을 시작할 때 자기 대에 반드시 밀수해온 후에 어떤 승리를 이끌어낸 것은 그 어떤 승산이나 담보는 없었다. 그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꽂고 우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원칙을 펼쳐하는 이 길에 한생을 바치리라.

내 나라의 국보를 인민의 전정한 향유로 만드는 국의 청진을 향하여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경우도 들풀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충만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모든 난관을 박차고 언제나 꿈바로,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넘도록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방대한 규모의 혁사자료에 대한 번역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 미더운 사회과학자들,

민족의 재보의 갑피같이 가치를

올려 나오는 시대의 메아리, 10년 남짓한 새월의 날과 달들에 우리 주인공들의 심장을 용암처럼 들끓인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로학자들 뜻지 않게 《비변사등록》번역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40~50대의 중견세대, 젊은 세대들이 학문을 배우고 실력을 쌓기 전에 애국자가 되어온 전진에 걸친 삶의 좌우명을 빛내었다.

이들 중에는 공훈과학자, 후보원사도 있고 교수, 박사도 있으며 환희의 오늘을 보지 못

가는 민족고전《비변사등록》

번역에 참여하여 어렵고 힘든 부분을 말아하면서 수많은 민족고전번역전문가가 키워낸

으로써 학자들이 되기 전에 전진한 삶의 좌우명을 빛내어 주고 있다.

그리고 로학자들 뜻지 않게 《비변사등록》번역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40~50대의 중견세대, 젊은 세대들이 학문을 배우고 실력을 쌓기 전에 애국자의 자세부터 먼저 익히기 위해 애써온 깊은 삶의 순간순간들이 민족고전의 갑피 같았던 것이다.

날과 날, 달과 달을 펴는

사생과 탐구의 열정으로 드겁게

달구어온 나날에 날에 하며 번역

이 깊은 밤 꿈에까지 빙영되며

잠자리에서도 모지를 펼쳤다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감동적인가.

로학자들은 자기들이

비쳐 죽적 한식을 깡그리 절

은 세대에게 넘겨주려고 애썼으

며 새 세대 연구사들은 선배들

에게서 민족고전번역의 묘리를

풀려나도록 배우기 위해 더없이 헌신하였고 자기들이 번역한 내용에 대한 학제전원자들의 의견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루빨리 높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 탐구의 날과 밤을 보냈다.

그 글밭을 통하여 이곳 일군

들과 연구사들도 모두의 가슴속에

작게 되었지만 지금은 사멸된 언어를 신언어로 만드는 민족고전번역사업을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꾸준히 하고 있는 우리의 미더운 사

회전향장기수 박문재 등지와 그의 암에는 많은 물자를

증명하였습니다.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연 10

여 차례에 걸쳐 6·18 건설돌격대

에 넘겨 주었다.

칠풀식당 노동자 김득실

동무는 여려 차례에 걸쳐 많

은 식료품을 마련하여

6·18 건설돌격대 평양시례

단·만경대 구역대에 보내

주어 돌격대원들의 전투적

사기를 높여주었다.

평안남도정부통신국 전명

삼, 억천철제가장 융품공장

송칠성, 평안남도민법원

변화회, 평성재정회학교

최옥선, 량원기계련합기업

소 체명원, 신의주시직판선

전사 오영수, 신의주시남새

및 식료품수출판리소로영회,

성간군협동농장경영위

원회 김승철, 고성남새온실

농장, 한명기, 경원지구란광

련합기업소 오봉란왕유지원

서정실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장, 운천동무들로 성의껏 마

련한 많은 지원자를 대동

강파수종합농장과 고산파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일동동포지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총련일 군들과 동포들의 모임이 21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 장소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배진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사무총국장과 김순철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육국 장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조선학교 교직원들, 동포 학자들, 유학생들,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은 국가의 주약으로 시작되었다.

구대석 제일본조선인 교육회

중당상임리사회 회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뜻 깊은

총련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

내주시었다고 하면서 장군님께

다합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

다고 말하였다.

대지진과 해일로 막대한 피

해를 입은 재일동포들에게

위문금을 보내주신데 이어 또

다시 배풀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에 끓어

오르는 정장을 금할수 없다고

그는 헌력을 하였다.

모임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유통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

내주신 사랑의 혁사는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해 변함

속에 탕득되었다.

모임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끝났다.

길 림 육 문 중 학 교 에 모 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재중동포들 꽂바구니 진정, 기념행사 진행

태양절에 즐음하여 길립육문 중학교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재중동포들이 15일 꽂바구니들을 전정하였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과 총련합회 일군들, 동포 그리고 심양주체 우리 나라 풍령사와 판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또한 길립육문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길립시의 관계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인민의 자유와

** **

태양절에 즐음하여 재중조선

인총련합회 보고하였다.

이날 태양절기념 사진 및 도서

전시회와 예술공연이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6. 15 이후 출

기 차게 발전 하던

북남관계가 여지 없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암적존재

이 파괴된 지금 손만보에도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초긴장감이

더러워졌다.

북남관계를 오늘과 같은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은 장본인은 다름아

닌 남조선의 「한나라당」과 구국

부수체당이다. 첨미사대와 동족계

계에 완창한 「한나라당」 폐거리를

이 지난 3년간 남조선 「국회」를

제2동주관으로 만들고 6. 1

5공동선언과 1. 0. 4선언의 히어

을 악랄하게 가로막으면서

북남관계에 대한 악

랄한 도전이 용납 못 할 반민족적

최악이다.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거예

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이다.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하여 6. 0여

년동안이나 강요되어온 분별상태가

더이상 지속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다.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하루

빨리 민족의 통일번영을 이루려

는 것은 온 거예의 한결같은 요구이

다. 그 그 누구인가, 어느 당파에

속해있건 조선사람의 냉을 지닌 사

랑이라면 이러한 민족의 요구를 거

역할 험파가 없다. 북남관계를

피하는 행위는 민족의 리익을 위세

에게 팔아먹는 역적행위이다. 『한

나라당』의 친미보수세력은

집권하자마자 그 무슨

『인권파

『핵문제』

『국회』, 일본의 공조강화, 『상호주의』,

『대북사업의 투명성』 등을 『대

북사업의 원칙』으로 들고나왔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라는 자는

집권 첫해에 통일부에 대한 『국

는 속심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

명해 준다.

제10. 4선언이 그 무슨 『국

민적공감대』를 얻지 못한 『협약문제』

사항』이 아니라 뭐니하고 그려

전상황을 보아가면서 『남북관

부제전의 속도와 폭, 추진방식을

하게도 『고발할 사건』이라는 악

당까지 늘어놓으므로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이 동족간의 그 어떤

접촉도 하지 못하게 단단히 못을

박았다. 또한 『북파』로부터 무

수용되지 않은 『대북무

용론』을 제창하다 못해 『북파

보수당이 고안해낸 『비핵, 개

방, 3. 0. 0』이라는 듯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권을 그대로 본판이며 그들이 떠들어던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이라는 것도 상전의 지

령에 따른 것이었다.

『한나라당』 폐거리를 독주부대

로 된 남조선 「국회」는 사실상 미

국의 대조선침략정책수행의 거주기

로 전락되며 고발된다. 북침전쟁도발

제2차 세계대전을 벌여온 『한나라당』

폐거리를 모조리 퇴출되면서

남조선 정부는 『한나라당』

를 정치적 미연수로 판단하는

것이다. 사실은 다른 홍제지들이

속해있건 조선사람의 냉을 지닌 사

랑이라면 이러한 민족의 요구를 거

역할 험파가 없다. 북남관계를

피하는 행위는 민족의 리익을 위세

에게 팔아먹는 역적행위이다. 『한

나라당』의 친미보수세력은

집권하자마자 그 무슨

『인권파

『핵문제』

『국회』, 일본의 공조강화, 『상호주의』,

『대북사업의 투명성』 등을 『대

북사업의 원칙』으로 들고나왔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라는 자는

집권 첫해에 통일부에 대한 『국

는 속심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

명해 준다.

제10. 4선언이 그 무슨 『국

민적공감대』를 얻지 못한 『협약문제』

사항』이 아니라 뭐니하고 그려

전상황을 보아가면서 『남북관

부제전의 속도와 폭, 추진방식을

하게도 『고발할 사건』이라는 악

당까지 늘어놓으므로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이 동족간의 그 어떤

접촉도 하지 못하게 단단히 못을

박았다. 또한 『북파』로부터 무

수용되지 않은 『대북무

용론』을 제창하다 못해 『북파

보수당이 고안해낸 『비핵, 개

방, 3. 0. 0』이라는 듯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권을 그대로 본판이며 그들이 떠들어던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이라는 것도 상전의 지

령에 따른 것이었다.

『한나라당』 폐거리를 독주부대

로 된 남조선 「국회」는 사실상 미

국의 대조선침략정책수행의 거주기

로 전락되며 고발된다. 북침전쟁도발

제2차 세계대전을 벌여온 『한나라당』

폐거리를 모조리 퇴출되면서

남조선 정부는 『한나라당』

를 정치적 미연수로 판단하는

것이다. 사실은 다른 홍제지들이

속해있건 조선사람의 냉을 지닌 사

랑이라면 이러한 민족의 요구를 거

역할 험파가 없다. 북남관계를

피하는 행위는 민족의 리익을 위세

에게 팔아먹는 역적행위이다. 『한

나라당』의 친미보수세력은</

자립 경제는 자주 정치의 물질적 담보

오늘 국제 무대에서는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침략과 간섭, 전쟁을 일삼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책동이 국도에 달고 있다.

이로 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날로 평화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책동을 짓부시고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것은 현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며 과제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업은 매개 나라들의 자주화과정을 통하여 이룩된다. 다시 말하여 매개 나라들이 자주화되어야 온 세계가 자주화될 수 있다.

매개 나라들이 자주화되자면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주정치를 실시한다는 것은 자기의 주권과 판단, 결심에 따라 독자적인 정책과 대선을 세우고 자기 나라와 민족의 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며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정치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로부터 흘러 나오는 기본정치방식이다.

자주성은 사회적인 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자주성이 사회적인 간의 본성이라고 하여 어느 사회에서나 그것이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자주정치가 없는 곳에서는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자주정치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오늘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나라들을 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전례없이 악랄해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질식시키기 위해 비렬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저들의 경제적 우세에 의거하여 자주적령장을 견지하는 나라들에 경제제재와 봉쇄를 들이미어 경제적으로 절식, 굶주시기로 정치적으로 밟매에게 민들려 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자주적령장을 고수하고 자주성을 실현하지만 경제적 자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주정치의 물질적 기초는 자립경제이다.

뿌리가 없는 나무를 바랄수 없듯이 자립경제를 떠나서 자주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자주적인 정치는 자립적인 경제에 의해 물질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자주적인 정치는 자립적인 경제에 의해 물질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것은 현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자주정치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로부터 흘러 나오는 기본정치방식이다.

자주성은 사회적인 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자주성이 사회적인 간의 본성이라고 하여 어느 사회에서나 그것이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자주정치가 없는 곳에서는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자주정치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오늘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나라들을 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전례없이 악랄해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질식시키기 위해 비렬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봉쇄에 견디여내지 못하고 자주성을 유린당하였다. 지금도 일부 나라들이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못한 외에 자주적대를 세우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서방세력들의 부당한 정치, 경제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치욕을 당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제제와 봉쇄책동을 끊고나가고 하여도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

경제적 자립성이 강한 나라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제재와 봉쇄를 능히 끊고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거기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며 종당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 잡혀 먹히우고만다.

이라크 사태를 그 실제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부터 강행되어온 이라크에 대한 장기 간에 걸친 미국의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절식시키다시피 하였다. 이로 하여 이라크는 경제적 자주성을 끊고나갈 수 없을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막치게 된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경제적 자립성 강화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을 끊고나갈 수 없을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적 존엄도 저치하고 자기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부합되게 자주정치를 실시해 나갈 수 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현대적 과학기술을 갖는 곧 강국과 약소국가를 가르는 기준으로 된다.

과학기술이 뛰어어지면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현대적 과학기술을 보여줄 때면 살아나갈 때 민족적 존엄도 저치하고 자기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부합되게 자주정치를 실시해 나갈 수 있다.

나이제리아 대통령 선거

나이제리아에서 군락크 에벨 헤조나탄이 대통령으로 선거에 당선되었다.

그는 최근에 있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재선하였다.

지부리 대통령 재선

지부리에서 이스마일 오마르 절레호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에 당선되었다.

나라의 발전을 이루할 것을 호소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국가주석인 풀 말리 싸이나 쑨은 최근 라오스에서의 새 해에 즈음하여 발표한 신년사에서 전체 인민이 단결하여 나라의 발전을 이루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조선반도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책동을 짚고 하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도시와 기관을 허용하지 않고 조미사이에 신뢰가 조성되어 쌍방관계가 정상화되었던 조선반도 핵문제는 이미 전제에 해결되었으며 조선반도핵문제가 해결되자면 무엇보다 먼저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되었으며 미국의 대조선핵 위험은 더는 막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신문은 조선반도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책동을 짚고 하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도시와 기관을 허용하지 않고 조미사이에 신뢰가 조성되어 쌍방관계가 정상화되었던 조선반도 핵문제는 이미 전제에 해결되었으며 조선반도핵문제가 해결되자면 무엇보다 먼저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되었으며 미국의 대조선핵 위험은 더는 막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개발을 외면